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I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www.vnet.go.kr

군 인 친 구
1666-9279
전 국 1 0 개 센 터 대 표 번 호

라:스팩 제대군인 2025 November Vol.237

리:스팩 제대군인

2025 November Vol.237

Re play

말과 사람 사이에서
길을 찾다

Re connect

플랫폼 노동 시대,
새로운 일자리 지도

Re new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제14회 제대군인 주간



신나라
예비역 육군 대위

Contents



리:스펙
제대군인

2025 November Vol.237



Re play

- 04 **리마인드**
나에게 가족은 []이다
- 06 **지금 우리는**
공구로 세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잇는 플랫폼 기업
크레텍웰딩㈜
- 10 **인사이드 스토리**
말과 사람 사이에서 길을 찾다
신나라 예비역 육군 대위
- 14 **위대한 전환**
군 스펙이 자랑스럽다
서기원 예비역 육군 대위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군 경험을 민간 직무로 연결하는 커리어맵 전략
- 20 **스페셜 리스트**
플랫폼 노동 시대, 새로운 일자리 지도
- 24 **금빛 상담소**
혼자만의 시간, 마음을 채우는 힘
최일권 <여보, 일주일만 산티아고 다녀올게> 저자
- 26 **지식 산책**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광주학생독립운동
- 28 **미디어 로그**
왕의 수라상에서 세계의 레스토랑까지
숙수 & 셰프

Re new

- 32 **전문가 칼럼**
포토샵, 채팅창 안으로 들어오다
이임복
- 34 **뜻있는 여정**
색과 바람과 울림을 따라 걷는 길
경남 통영
- 38 **센터는 지금**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제14회 제대군인 주간, 전국을 응원의 물결로 물들이다
- 42 **독자 광장**
마음은 비우고, 지혜는 채우는 시간
늦가을, 비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책

11

통권 237호

발행일 2025년 11월 3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권오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족은 []이다

“집은 당신이 온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 빛을 찾는 곳이다.”

— 작가 『피어스 브라운』의 ‘Golden Son’ 중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부신 햇살처럼, 혹은 잔잔한 등불처럼 곁을 지켜주는 이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빛이 납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불 켜진 창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서툴지만 따뜻한 한마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밝히는 작은 별이 됩니다.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를 감쌉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 더 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빛나는 존재.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창밖의 초겨울 햇살처럼, 가족은 언제나 곁에서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 빛이 모여 11월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고 환해지길 바랍니다.





크레텍 웰딩 A/S센터

Tel. 053)250-0625 Fax. 053)256-0793



공구로 세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잇는 플랫폼 기업

크레텍웰딩(주)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산업 현장의 가장 작은 부품부터 안전을 지키는 보호구까지,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공구들이 국가 산업을 움직인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업의 표준을 세우며 한 길을 걸어온 기업, '공구로 세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기업, 바로 대구 서구에 소재한 크레텍웰딩(주)이다.

공구 하나로 시작한 신뢰의 역사

1987년 12월 만봉기공이라는 이름의 작은 용접용품점이 대구에 문을 열었다. 1994년 만봉웰딩(주)으로 법인 전환하고, 이후 2010년에는 크레텍웰딩(주)으로 사명을 바꿨다. 모기업 크레텍(1971년 설립)은 산업공구 표준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정립한 곳으로, 기계공구 중심의 크레텍책임과 달리 안전 용접 산업용품이라는 새로운 산업공구 분야 전문화를 위해 크레텍웰딩을 분리, 성장시키기로 했다. 크레텍웰딩은 초기에는 용접봉과 용접기만 취급했지만, 산업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같은 보호구로 품목을 넓혀갔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서 찾을 수 있게 하자.' 그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약속이 오늘의 크레텍웰딩을 만든 뿌리였다.

나아가 크레텍웰딩이 고객접점으로 둔 것 중 가장 특이한 것은 1989년 발간을 시작한 『한국산업공구보감』 발간이다. 일본 카탈로그에만 의존하던 국내 산업 현장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준이 있다"고 선언을 남겼다. 그 책은 지금도 격년으로 발행되어 제19판에 이르렀고,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의 시설 관리 기준이 되었다. '표준을 만든 경험', 그것이 크레텍웰딩의 DNA가 되어 산업공구 유통의 신뢰를 구축했다.

크레텍 웰딩



바코드에서 '공구ON'까지, 진화는 계속된다

크레텍웰딩의 40년을 관통하는 단어는 '혁신'이다. 그러나 그것은 화려한 기술보다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실용적 변화에 가까웠다. 2004년 산업공구 유통 업계 최초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했고, 2006년에는 온라인 주문시스템 CTX(CreTec eXpress)를 개설해 팩스와 전화에 의존하던 발주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꿨다. 지금 전체 거래의 95%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2014년 선보인 '공구ON'은 이 여정의 결정판이다. 공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고객사별 맞춤형 판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 공구상들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지속적인 개선 끝에 '공구ON'은 단순한 주문 시스템을 넘어, 빅데이터 기반의 판매 추이 분석과 고객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기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상생'이라는 철학이 자리한다. 이 철학은 제품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 크레텍웰딩은 자체 브랜드 cretos(크레토스)와 smato(스마토)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3M·K2·유한킴벌리 등 470여 국내의 브랜드를 함께 취급한다. 수요가 많은 제품은 물론, 시장에서 드물게 찾는 품목까지 폭넓게 갖춰 "크레텍웰딩에 없으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1만여 공구상과 1,400여 제조사를 연결하는 크레텍 그룹의 탄탄한 플랫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산업공구보감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성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 때 크레텍웰딩은 마스크와 방역용품이 정부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자 ‘나라와 사회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공급 안정화에 나섰다. 이 일화는 그들의 사회공헌 철학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1991년부터 이어온 대구 제일여상과의 산학협력, 2005년부터 후원 중인 경상중학교 야구부, 경북대·영남대에 각각 10억 원을 기탁해 진행한 장학금과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국내외 재해성금, 이웃돕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육상연맹 후원까지 ‘받은 신뢰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실은 2025년 1월 경북 경산에 완공한 ‘크레텍 스마트 물류센터’로 구체화되었다. 연면적 2만 평, 첨단 자동화설비를 갖춘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공구 물류센터이자 국토 교통부 1등급 스마트물류 인증 시설이다. 익일 배송이 가능한 체계는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

세계를 향하되, 현장을 잃지 않는다

크레텍웰딩이 그리는 미래는 명확하다. 용접·안전·산업용품 분야에서 세계가 신뢰하는 B2B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다. 3M, 듀폰, 헨켈



같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선진 기술을 배우되, 조선선재 등 국내 기반산업과 함께 성장한다. 세계로 향하면서도 현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크레텍웰딩의 철학이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영세 공구상의 경쟁력을 지켜주고, 빅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면서도 개별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공구로 세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구호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 산업을 지탱하는 하나의 약속이다. 크레텍웰딩의 다음 40년 역시 그 약속 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I N T E R V I E W

“제대군인은 회사가 믿는 인증마크입니다”

크레텍웰딩에는 장교 14명, 부사관 14명 등 총 28명의 제대군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11명입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대군인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제대군인의 장점은 많습니다. 군 조직에서 익힌 기강과 책임감이 협력과 책임감으로 체화되어 회사에서는 애사심과 성실함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스스로를 관리하고 조직을 조율하며, 현장의 목표를 끝까지 완수해 내는 추진력과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저는 늘 “제대군인은 인증마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늘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제대군인 채용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완공한 크레텍 스마트물류센터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군인·소방관·경찰 등 제복근무자와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에도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용
대표이사

“군에서 배운 책임감과 계획력, 영업 현장에서도 통합니다”

신병교육대대 소대장과 GP장, 군수·정보 연대참모, 중대장 등으로 6년 4개월간 복무했습니다. 2020년 전역 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크레텍웰딩을 알게 되었고, 2021년 9월 입사했습니다. 상품운영팀에서 물류시스템을 익힌 뒤 현재는 영업부 계장으로 대구·성주 지역 약 100여 개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열 곳이 넘는 거래처를 방문하며 고객의 요구를 듣습니다. 업무량은 많지만 현장의 불편을 해결할 때 느끼는 보람이 더 큼니다. 군수장교 시절의 예산·납품 경험과 중대장으로서의 조직관리 능력은 영업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높였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크레텍웰딩은 꼭 가고 싶은 회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업현장과 함께 성장하는 영업 전문가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이동주
영업1팀 계장

“군에서 익힌 정확함, 산업현장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공군 방공포병학교에서 중거리유도무기 발사장비정비사로 5년간 복무했습니다. 정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과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그때 수많은 공구와 안전용품을 다뤘지만, 크레텍웰딩에 와 보니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로지스팀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을 익혔고, 지금은 상품운영1파트에서 산업안전용품 등 1만여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맞추는 일이 제 성과와 잘 맞습니다. 입사 후에는 회사의 자격증 취득 지원과 동료들의 응원 속에 5개의 자격증을 뒀고, 현재 기능사 실기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함께 배우고 도전하는 분위기가 있어 개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군에서 어떤 경험을 했든, 자신감과 실행력이 있다면 사회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백 번의 조언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백 번의 행동입니다. 저 역시 자기 개발과 업무 역량을 꾸준히 쌓으며, 기회가 된다면 관리자나 센터장 자리에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조태호
상품운영1파트 대리



신나라
예비역 육군 대위

말과 사람 사이에서 길을 찾다

정훈장교에서 국어강사로,
단어보다 마음을 가르치는 선생님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군 시절, 군은 그녀의 교실이었다. 병사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올바른 가치와 문화를 전하는 일은 그 자체로 교육이었다. 시간이 흘러 군복 대신 분필을 든 그녀는 다시 교단에 섰다. 이번엔 국어책을 펼치며 '말과 사람'을 가르친다. 육군 정훈장교 출신, 지금은 서울 노원구의 한 국어입시학원에서 중등부를 가르치는 신나라 예비역 육군 대위. 군대와 교단, 두 세계를 잇는 그녀의 이야기는 제대 이후의 두려움을 배움의 시간으로 바꾸어낸 여정이다.



책임감으로 자란 아이, 리더가 되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리더'다. 학급 회장은 늘 그녀의 자리였고,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서는 아이였다. 별명은 조금 독특했다, '조폭 마누라'. 하지만 그건 싸움 때문이 아니라 약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성격이 활발해 남 자아이들과도 잘 어울렸기 때문에 비롯된 별명이었다.

그녀는 일찍부터 책임감의 무게를 배웠다. 'K-장녀'로서 가정의 중심을 맡았고, 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다. 그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으로 이어졌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은 저를 과잉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부딪치며 배우게 했죠.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부모가 건넨 그 신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존감으로 자랐고, 이후 군 조직과 교단에서 흔들림을 막아 준 나침반이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녀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책과 글을 좋아했던 그녀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며 언어의 깊이를 배웠고, 그 감수성과 표현력은 훗날 정훈장교로서 '말로 사람을 이끄는 힘'의 밑거름이 되었다.

말로 이끄는 장교, 정훈의 길에 서다

2012년 대학 ROTC(학군단)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에 들어섰다. 육군 부사관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원사 출신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를 보며 질서와 책임, 그리고 사명감을 배웠어요. 제게 군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익숙한 곳이었죠" 2014년 임관 후 6년 동안 육군 제12보병사단 정훈공보부에서 시작해 11기계화보병사단, 인사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까지 다양한 부대를 거쳤다. 그녀의 보직은 정훈공보장교, 군 조직의 정신전력과 교육,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는 '소통의 최전선'이었다. "정훈장교는 전투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조직은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듣는 힘'이 필요했죠. 설득이 아니라 이해로 시작하는 소통이요."

정훈장교는 부대별로 순회 강의를 다닌다. 한 번에 200명 가까운 병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의할 때면 누구라도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그 무대가 즐거웠다. "집에서는 내향적인 편인데, 군 복만 입으면 성격이 달라졌어요. 강의 중 분위기가 지루해지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나중에는 친구들 결혼식에서 사회나 축가를 맡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정훈장교는 늘 올바르고 긴장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교감했다. "힘들어도 웃으려 했고, 제가 하는 일을 즐기려 했어요. 지금의 제 강의 방식도 그때의 태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특히 2016년 강원도의 혹한기 훈련 당시, 영하 20도의 눈밭에서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며 얻은 경험은 잊지 못한다. "눈을 깜빡이면 눈물조차 얼던 날이었어요. 그래도 모두 함께 버텼죠. 그때 깨달았어요.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군은 그녀에게 체력보다 '인내력'을, 명령보다 '의미'를 가르쳤다. 그 시간은 지금의 강사 신나라를 만든 원형이었다.





군복을 벗고, 나를 다시 찾다

2020년 전역을 결심했다. 군은 여전히 애정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부름이 있었다. “군 생활이 안정적인 건 하지만, 저답게 살고 싶었어요. 주어진 규율을 따르는 일보다, 제가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러나 전역은 예상보다 갑작스러웠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역식조차 열리지 않았다. 아쉬움은 글로 채웠다. “이제는 글로 내 삶을 써내려가자.” 그녀는 군 생활의 이야기를 엮어 에세이 『군대 나온 여자인데요』를, 스페인 여행에서 느낀 감정을 담은 시집 『나쁜 생각』을 출간했다. “책을 내면서 진짜 사회인으로 출발한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전역 후의 세상은 낯설었다. 리조트 영업, 모바일 결제회사, 쿠폰 마케팅 기업.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적성을 찾아갔지만, 마음 한 켠에는 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남았다. 그 과정에서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의 박용하 상담사가 해준 조언이 전환점이 되었다. “단순히 이력서를 채우기보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답은 분명했다. 언어로 세상과 연결되는 일, 바로 교육이었다.

다시 교단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일

올해 초, 그녀는 서울의 학원법인 ‘언희당’에서 국어 강사로 새 출발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는 교단에 선다. 중학교 1학년 5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독서 코칭과 문법 지도를 병행한다. “처음엔 교단에 선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강의는 군 시절의 교육과 닮아 있었어요. 학생들이 병사보다 솔직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만 다르죠.”

그녀의 수업은 특별하다. 지식 전달보다 관계 형성에 가깝다. 문학 작품에서는 인물의 감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문법 수업은 일상 언어로 풀어낸다. “국어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학문이에요. 문장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요.”

정훈장교 시절에도 책을 많이 읽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는다. 학생들과의 대화와 수업을 위해 시와 소설, 에세이까지 폭넓게 탐독한다. 군에서 익힌 유연한 대처 능력은 교단에서도 빛을 발한다. 수업 시간이 어긋나거나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도 그녀는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대응한다. “군 시절엔 한순간의 판단이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학생의 자존감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강사이기 전에 경찰자가 되려 한다. 매일 수업 후에는 학생들의 질문을 모아 일지를 쓰고, 다음 날 수업에 반영한다. “군에서 배운 보고체계는 제게 ‘루틴’을 만들 어줬어요. 교실은 매일 변하지만, 제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강사이자 작가, 그리고 인생의 동행자로

그녀는 여전히 글을 쓴다. 군 시절부터 시작한 글쓰기는 이제 삶의 일부가 됐다. “글쓰기는 제게 ‘숨’이에요. 하루를 버텨내는 호흡이죠.” 다음 에세이의 주제는 ‘학원 강사로서의 일상’이 될 예정이다.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 배움과 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전업작가로 성장하는 게 꿈이에요.”

그녀는 앞으로도 시집과 에세이를 꾸준히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한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삶의 태도를 전하고 싶어요. 세상을 대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걸 배우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오늘도 교단에 선다. 군복 대신 분필을 들고, 병사 대신 학생을 마주한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은 여전히 ‘정훈’이다. 말로 마음을 잇고, 사람으로 세상을 만드는 일. 그게 군에서도, 교실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길이다.

그리고 후배 제대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전한다. “부대 밖은 전쟁터가 아니라 새로운 놀이터예요. 군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하며,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세상을 만나보세요. ‘아침 말고’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단단하니까요.”

신나라 예비역 육군 대위의 인생 법칙

1. 일상을 휴가처럼 살기

심장이 뛰는 일을 선택할 때 순간을 아쉬움 없이 즐기며, 삶은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2. 일과 삶의 조화 이루기

일을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일상 속 배움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3. 나를 관찰하고 돌보기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삶의 균형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군 스펙이 자랑스럽다

2025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 공모전 우수상

서기원

예비역 육군 대위

워게임(Wargame). 전쟁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현대에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군사 연습 방법의 하나이다. 군에서 워게임을 하는 목적은 실제로 병력과 장비, 물자를 동원하여 훈련하지 않으면서도 지휘관의 지휘 능력과 참모들의 조연 능력을 향상하고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함이다. 평소 워게임을 잘해 두면 실전에서 시행착오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에게겐 전역을 앞두고 주어진 '전직지원교육 기간'이 사회 진출이라는 실전을 앞두고 마음껏 워게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막상 전직지원교육에 입교하면서 더 이상 부대에 출근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했다. 호기롭게 전역을 신청했지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장교로 임관하여 사회 경험도 없이 곧장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 나로서는 짧지 않은 군 경력을 뒤로한 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컸기 때문이다.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앞두고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나를 보면서 30대 중반의 나이는 더 이상 마냥 젊지만은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10년 동안 군에서 받았던 다양한 교육들, 여러 가지 보직을 맡아 노력했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동안 군에서 경험했던 내 모든 순간이 과연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취업이나 전역 전 준비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듣기 위해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수많은 선후배와 동료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전역 후 진로는 정말 다양했기에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도 했다. 이때 나에게 큰 도움이자 힘이 되었던 기관이 '제대군인지원센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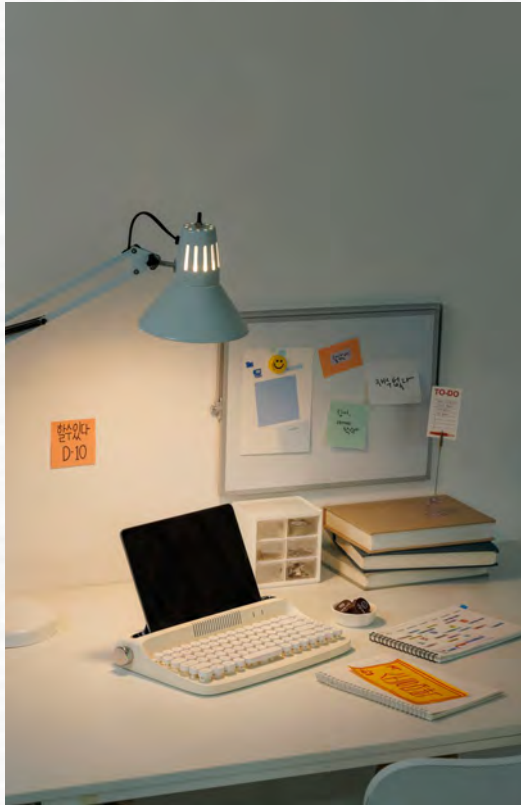
전역일이 확정되고, 전역 예정인 장기복무군인으로 등록하자, 센터에서는 나를 전담하는 상담사를 배정하여 나의 성공적인 전직을 위해 좋은 정보와 제도를 소개해 주었다. 특히 나의 병과와 이전 경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였는데, 상담사 또한 군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업 지원기관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전역 이후에도 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나에게 센터에서는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을 추천해 주었다. 특히 이들 기관의 경우에는 군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학벌이나 나이, 출신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법을 통해 인재

를 선발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면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국가보훈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나서였다.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하며 정들었던 친정인 군을 떠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곧장 관심 있는 기업에 이력서를 내야 하는지, 스펙 향상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지, 인턴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 그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기에 혼자 판단해야 했다. 그러던 와중 국가보훈부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이 완료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들은 바로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와 '전직 지원금', 그리고 '보훈특별고용 제도'였다. 특히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에서도 미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역 직후에 교육을 받으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의 추천으로, 그동안 꼭 취득하고 싶었지만 3주라는 긴 교육 기간과 약 200만 원 상당의 높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드론 조종 자격증 과정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다. 나와 함께 교육받는 수강생들 대부분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상황이었는데, 국비 지원이 약 15% 정도라 대부분 금액을 직접 부담했던 반면, 나는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아 정말 저렴하게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전역 이후 당장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감도 잡지 못했지만, 자격증 취득이라는 단기 목표부터 세우고 실행하다 보니 오히려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동안 미뤘었던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니 자신감이 붙게 되었지만, 꾸준히 지급되던 봉급이 없으니 절로 초조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취업에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저축해 두었던 돈을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25일이 되자 전직 지원금으로 내 계좌에 81만 원이 입금되었다. 신청하고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전직 지원금이 입금된 것이다.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고 느낀 전직 지원금은 특히 나처럼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연금 수



령 대상자가 아닌 상태에서 전역한 군인들에게는 이 정도의 금액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되었다.

한편, 국가보훈부 취업지원팀에서는 나를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해 다양한 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보훈특별고용이란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원의 5배수로 국가보훈부에서 추천하여 이 추천을 받은 사람끼리 경쟁하는 제도로, 요즘처럼 취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훈특별고용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내실 있고 건실한 기업에 지원할 수 있어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난 전역 후 2개월 만에 관심이 있던 공공기관의 보훈특별고용 공고를 확인하게 되어 관할 보훈청에 추천을 신청하게 되었다. 지원을 희망한 기관에서는 단 2명만 채용을 하기로 해서 추천은 10명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나보다 앞선 순번의 지원자들이 많아 추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바로 일주일 후, 또 다른 좋은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추천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보훈 추천을 받게 되었다.

서류전형 통과하기 위하여 난생처음으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며 나의 경험을 기술하게 되었다. 필기시험이나 면접 등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스펙으로 어필해야 하는 현실을 이때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이를 동안 수정을 거듭하며 500자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끝에 제출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과정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경험하는 내 또래 청년 세대에 비하면 나는 군이라는 튼튼한 지붕 아래에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구나.'였다. 일주일의 긴 기다림 끝에 서류전형 통과와 필기시험 응시라는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다. 전직지원교육 기간 동안 다양한 공기업, 공공기관의 NCS 기출문제와 사설 문제집을 풀어보며 했던 공부를 바탕으로 필기시험을 준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곧바로 면접을 준비했고, 아니나 다를까 필기시험 결과도 합격이었다.

면접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항상 군에서는 전투복을 입고 면접을 보았는데, 일반 기업의 면접을 앞두고 보니 당장 입고 갈 복장부터가 마땅치 않았다. 다행히 관할 지역 청년 일자리 센터에서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한 기관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최근 국내외 관련 이슈와 기업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하였고,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장에 도착하였다. 면접은 다대다(多對多) 면접과 다대일(多對一) 면접으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나를 제외하고는 지원자들 모두가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라 내심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다들 공공기관에서 인턴 활동이나 대외 활동 수상 경험 등 최신 스펙으로 무장하여 면접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마치 AI처럼 짜임새 있게 잘 대답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나조차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했는지 느껴질 정도였다.

경험이나 직무에 관한 강점을 시작으로 내가 대답할 차례가 되자, 서류 내용에 활자로써 들어가는 스펙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꾸밈없이 솔직한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에서 경험하며 체득했던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키워온 적응력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답변으로 면접을 이끌어 나갔다. 특히 다대일 면접에서는 내가 준비했던 모든 답변이 다 소용없었는데, 면접 위원들 모두가 다 군과 관련된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면접 위원으로부터 '제가 면접 위원으로 여러 해 참가했지만, 지원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들은 참 특별하네요 자기소개서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 군 경험은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유니크한 스펙이라고 평가받는 순간이었다.

면접을 마치고 면접장을 나서면서 취업을 위해 처음으로 지원한 기업에서 운이 좋게도 모든 절차를 다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수기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현재, 지원했던 기업의 최종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전역을 앞두고 들었던 것과 같은 이전의 불안함이나 초조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감정들이 기업의 채용 절차와 지원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던 나의 무지함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Great Transition

실패 속에서 보완과 성장이 있듯이, 다음번 도전에서는 더 빛나는 지원자로서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관할 보훈청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서류를 제출하러 간 날, 다양한 혜택과 제도를 소개해 주신 주무관 한 분이 장기간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나를 위해 이렇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글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고 싶다. 군 복무를 하면서도 나는 늘 국가로부터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국가보훈부로부터 이렇게 또 도움을 받고 실제로 기업에서도 내 군 경력을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니 그동안의 군 복무가 참 자랑스러워졌다.

이 수기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제대군인과 전역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현역 군인들에게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군 경력이 과연 사회에 나와서 쓸모가 있느냐고 현역들이 물어본다면, 단연코 그렇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의 성실함과 최선의 노력들이 전역 이후에도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꼭 전해주고 싶다. 사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스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성되고 있다고... ㉞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군 경험을 민간 직무로 연결하는 커리어맵 전략



군 경험을 직무로 바꾸는 핵심 4단계

1. **경험 세분화** — 지휘·관리, 기술·정비, 교육·훈련, 보안·안전, 물류·보급 등으로 나누기
2. **민간 직무와 비교**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를 참고해 유사 직무 찾기
3. **성과 중심으로 정리** — ‘무엇을 했다’보다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초점
4. **공식 증빙 남기기** — 자격증, 교육 이수증, 업무 문서로 경력화

예를 들어 정비사의 장비 정비 경험은 설비관리·품질관리 직무, 행정보급관의 예산·인력 관리 경험은 총무·인사 직무로 연결된다. 군과 민간의 기준을 호환 가능한 형태로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군 특기별 민간 직무 매칭 예시

군 특기 / 직무	전환 가능 민간 직무	핵심 역량 키워드
행정보급관/행정병	인사·총무, 사무관리, 행정지원	문서 관리, 조직 조정, 예산·비용처리
정비병/차량 정비	기계 정비, 설비 유지보수, 품질관리	차량 정비, 유지보수 절차, 예방정비 경험
보안·경비병	보안업체, 안전관리, 시설관리	출입통제, 위험 관리, CCTV 운용 경험
통신병/정보통신	IT지원, 네트워크운영, 보안시스템	통신 장비 운용, 네트워크 유지, 보안 경험
교육훈련병	교육기획, 사내강사, HRD	훈련계획, 피드백 관리, 리더십
작전장교/참모	기획, 관리, 전략 담당	조직 기획, 정책 수립, 관리직

군 경력을 이렇게 직무별로 재구성하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 직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예를 들어 “○○부대에서 병력 통제 담당”보다 “팀 인력 운영 및 근태 관리 담당”처럼 보편적 업무 언어로 바꾸면 전달력이 커진다.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의 시간이 아니다. 부대를 운영하고 장비를 관리하며 사람을 이끄는 과정에서 길러진 역량은 민간 사회에서도 통하는 실무 능력이다. 그러나 제대 후 많은 이들이 “군 경력이 사회에서도 통할까?”라는 질문에 부딪힌다.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언어의 차이에 있다. 군에서의 경험을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환을 돕는 지원제도 활용법

군 복무 경험을 민간 경력으로 연결하려면 다음 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 컨설팅(경력설계·이력서 작성), 취·창업 상담, 구직역량강화 교육 및 예산을 지원한다.
- **국방전직교육원(MOTI)**: 진로교육·전직기본교육·맞춤형 전문교육·전직컨설팅 등 전직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제대군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확산하는 제도다. 구직 연결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 **민·군 협력형 채용·훈련 프로그램**: 기업과 연계한 현장형 과정(예: 특정 기업과 합동 운영하는 취업준비 심화 과정 등)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 기간의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 반영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대군인의 경력 인정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전환 과정에서 흔한 장벽 & 대응 전략

주요 문제	현실적 어려움	대응 전략
지원 준비 부족	제대 직전 급하게 전직 준비 시작	제대 전부터 경력 설계, 교육·멘토링 참여
자격증·증빙 미비	군 자격이 민간에서 인정되지 않음	민간 유효 자격증 추가 취득, 이력서 역량 중심 작성
조직문화 차이	군의 위계문화와 민간의 수평문화 충돌	조직문화 이해, 유연한 소통 강조
직무 미스매칭	군 특기와 민간 수요 불일치	상담을 통한 맞춤형 매칭, 직무 전환 교육 활용

전직의 성공은 ‘준비의 시기’에 달려 있다. 제대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자격·소통·직무 매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군 경험은 새로운 커리어의 출발점이 된다.

플랫폼 노동 시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으로는 오늘의 노동지형을 설명하기 어렵다. 일(작업·프로젝트) 단위로 거래하고, 플랫폼을 통해 수요·공급이 즉시 매칭되는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는 2023년 88.3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새 11.1% 늘어난 수치다. 같은 시기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제 일자리의 좌표는 ‘고용’이 아니라 ‘연결과 경험, 그리고 안정’ 위에서 새로 그려지고 있다.

글 편집실

*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은 2010년대 중반 EU·ILO 보고서에서 본격 통용된 용어다. 디지털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일감·평가·결제를 통제하는 비표준 노동을 지칭하며, ‘긱(gig) 경제’보다 범위가 좁고 ‘공유경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숫자가 말하는 변화, ‘직장’에서 ‘일’로의 이동

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79.5만 명에서 2023년 88.3만 명으로 증가했다. 유형은 운송·배송, 가사·돌봄 같은 현장(온디맨드)형과 개발·디자인·번역·데이터 작업 등 온라인(디지털)형으로 양분된다. 통계청 부가조사(2024. 8. 기준)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자가 665만 7천 명(23.1%)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제기구(OECD·ILO)의 정의는 다르지만, 공통된 기준은 하나다. “업무의 접근·평가·결제·노출을 플랫폼이 통제한다면, 그것은 플랫폼 노동이다.” 즉, 이제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이 일의 흐름을 설계하는 시대다.

새로운 일자리 지도

플랫폼 노동의 성장, 기술·경제·사회가 만든 변화의 삼각형

플랫폼 노동의 성장은 단순한 산업 트렌드가 아니라 기술 혁신, 경제 구조, 사회 인식 변화가 함께 만든 결과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 GPS 기반 기술은 언제 어디서든 수요자와 공급자를 즉시 연결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 노동은 사무실이 아닌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지고, AI 알고리즘이 일감 배분부터 평가와 정산까지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은 물리적 인프라 없이도 수많은 인력을 연결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며, 노동자는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이 흐름을 가속했다. 기업은 상시직보다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선호하게 되었고, 노동자는 고용의 불안 속에서 즉시 일감과 수입이 가능한 플랫폼을 선택했다. 이 구조는 기업에는 유연성을, 노동자에게는 생계의 통로를 제공했다. 여기에 세대 변화가 맞물렸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직장보다 일’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자신의 일정과 삶을 우선하는 흐름이 커졌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다중소득(N잡)을 추구하는 경향도 플랫폼 노동의 확산을 뒷받침했다. 노동의 중심이 ‘고용’에서 ‘연결’로 옮겨가며, 플랫폼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새로운 노동 구조의 무대로 부상했다.

분야도 방식도 달라진, 새로운 일의 지형도

구분	세부 분야(예)	주요 특징
온디맨드·이동/배송	대리·라이드헤일링, 배달, 퀵서비스	위치 기반·시간 민감, 안전·산재 리스크 큼
온디맨드·생활서비스	가사·돌봄, 방문 수리·설치	평판·검증·보험 필수, 반복 고객 중요
온라인 프리랜서(전문)	개발, 디자인, 번역·현지화, 마케팅, 테크 라이트	납기·저작권·SLA 명확화 필요
마이크로워크/크라우드	데이터 라벨링, 콘텐츠 검수, 모델 평가	단가·품질기준·데이터보안 핵심
교육·크리에이터 경제	강의·클래스 운영, 숏폼·라이브커머스	저작권·초상권·광고표시 준수 필요

'자유'와 '불안' 사이, 플랫폼 노동의 두 얼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은 자유와 불안이 공존하는 일터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프로젝트 단위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제대군인과 중장년층에게는 소득 보완과 경력 전환의 기회, 청년층에게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의 자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 자유의 반대편에는 불안이 있다. 일감이 끊기면 수입이 즉시 줄고, 플랫폼의 정책이 바뀌면 생계가 흔들린다. 다수의 플랫폼 종사자가 여전히 산재보험·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노동 분쟁 시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 “플랫폼이 일을 준다”는 명목 아래 근로를 통제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 이것이 비전형 노동의 현실이다.



일의 경계가 바뀌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

일은 이제 더 이상 '직장'의 이름으로만 불리지 않는다. 한 사람의 경력은 여러 프로젝트와 플랫폼을 거치며 이어진다. 정부의 정책이 제도를 설계한다면, 노동자 스스로는 계약 조건, 보험 적용, 기술 역량을 포함한 자기 보호와 자기 성장의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이 '불안한 대체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문직 일자리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의미의 '노동의 전환기'가 완성될 것이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리스크 관리 5가지

혁신을 지키고 보호를 더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의 설계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2021년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5장의3은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했다. 그동안 보호에서 제외됐던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새롭게 포함되며 고용안전망의 문이 열렸다.

2023년 7월에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80만 명 이상의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국 고용센터 내에 '플랫폼·프리랜서 전담창구'를 설치해 기존 근로자이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상담·세무·직무교육·심리상담·안전교육 등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일원화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도 하나의 노동자'라는 인식이 비로소 제도 안으로 들어온 첫 단계다.

1 계약·요율 관리

- 업무 범위(SOW), 납기, 수정한도, 저작권·2차 사용권을 명시해야 한다.
- 구두 합의 금지, 모든 계약은 서면 또는 플랫폼 내 메시지로 남긴다.

3 알고리즘 이해

- 평점·노출·배차·제한 기준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확보한다.
- EU는 2024년 플랫폼노동 지침으로 알고리즘 투명성과 감독, 이의제기 권리를 의무화했으며, 한국은 제도화를 논의 중이다.

5 리스크 분산 전략

- 한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중 플랫폼 활동(멀티호밍)을 병행한다.
- 비수기에 대비해 3~6개월 생활비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업스킬(기술 고도화) 계획을 세운다.

2 안전·보험 점검

- 산재보험 적용 여부, 단체보험 가입, 사고 시 신고 절차를 미리 숙지한다.
- 이동·배송 종사자는 휴식시간 기록 및 보호장비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4 세무·정산 관리

- 원천징수(3.3%) 여부, 부가세 과세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숙지한다.
- 정산 지연 시 수수료·지연이자 기준을 미리 확인한다.





혼자만의 시간, 마음을 채우는 힘

글 최일권

Q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아이의 부모이자 가족을 책임지는 오래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소중하지만 종종 한 사람으로서의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싶은데, 용기도 시간도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너무나 이해됩니다. 저 역시 평생 직장인으로 살며 길어야 5일 남짓의 휴가가 전부였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웠죠. 사실 어릴 적부터 혼자, 그것도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막연히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였던 '산티아고 순례길 풀코스'는 오랫동안 잊힌 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꼭 은퇴한 뒤에 가야 할까? 800km가 아니라 100km, 단 일주일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함을 잘게 쪼개자 용기가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순례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 왜 순례길이었나요?

첫째, 회사에서 연차를 반드시 소진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둘째, 더 이상 내 시간을 '소소한 행복'을 찾는다면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 정신없이 쓰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야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어도 서툰 채, 낯선 땅에서 스스로의 밑바닥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800km 전부를 걸을 생각에 포기했었지만, 순례자 70% 이상이 100km만 걷는다는 걸 알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죠. 그래서 순례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원했던 건 '모든 구간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짧지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2 혼자라서 외롭지 않았나요?

제가 간 시기는 한겨울, 순례자는 없고 우기만 많았던 비수기였습니다. “어디 몸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왜 하필 그 추운 시기에 가려고 해?” 순례자 전문가 친구가 말렸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아무도 듣는 이 없기에, 마음껏 떠들 수 있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부끄러운 기억에 화도 내며 혼자만의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혼잣말을 이어가다 보니 결국 저 스스로에게도 꺼내지 못한 오래된 감정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텅 비워낸 마음의 자리에 순례길의 바람과 자연이 스며들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경험이었죠.



3.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나요?

있었죠. 어두컴컴한 새벽길에 폭우가 쏟아져 휴대폰 액정은 젖고 내비를 볼 수 없어, 길을 잃었습니다. 엉뚱한 길을 걷다 우사(牛舍) 안으로까지 들어갔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도 길이잖아, 그래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구나.”

정답이라 믿은 길만이 길은 아니었죠. 그 뒤로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나와 지금의 이 길은 지금뿐이잖아요.



4. 마지막은 어땠나요?

우기 시즌답게 사흘 내내 비가 내렸고, 진흙밭을 걷는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비와 함께 쏟아진 서러움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자,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더라고요. 자연은 그저 장엄하고 건강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깎이면 깎이는 대로, 비를 맞으면 맞는 대로, 나뭇잎이 무성하거나, 다 떨어진 채로 그냥 온연하게 살아가야겠다.”

쏟아지는 비에 안개가 생기고, 그 안개가 걷히면 햇살은 더 찬란해지듯이 말이죠.

5. 일상에서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침묵의 저녁'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끝, 모든 소리를 끄고 어둠 속에 잠시 앉아보세요. 휴대폰도, 불빛도 멀리 두고 그저 숨소리만 들으며 있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라는 스스로의 위로 같은 목소리요. 그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충분해지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어찌면, 우리가 매일 걸을 수 있는 또 다른 순례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불편함과 통쾌함을 지나며 각자의 색을 가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 모든 이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길이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글쓴이 소개 최일권

<여보, 일주일만 산티아고 다녀올게> 저자, 15년 차 엔지니어이자 코치

광주학생독립운동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존 지식

글 편집실

제5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41번 문항

41.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우표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다. 우표는 이 운동의 기념탑과 당시 학생들의 울분을 함께 형상화하여 도안되었다. 학생의 날은 2006년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①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②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 ④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신간회 중앙 본부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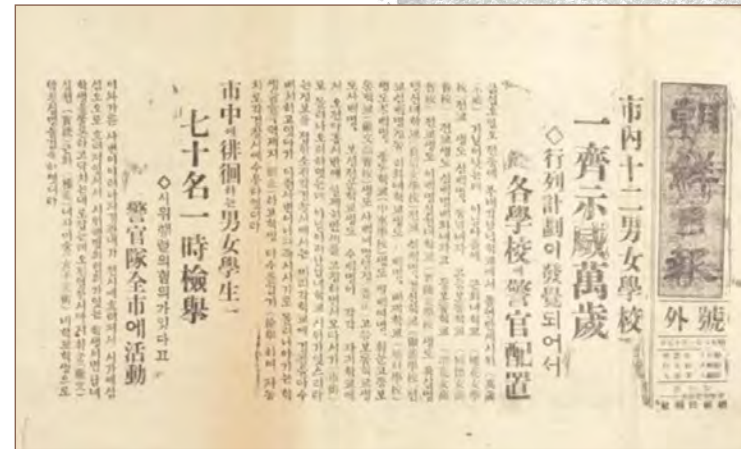
[정답] ⑤번 문제의 이 운동은 광주학생독립운동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대규모 항일 학생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53년 ‘학생의 날’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신간회 중앙본부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면서 운동의 확산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제의 차별에서 비롯된 불씨

1929년 11월 3일 광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조선인 남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충돌하면서 싸움이 번졌고, 곧 경찰의 일방적인 일본인 편들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식민지 교육 속에서 누적된 차별과 억압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 학생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차별적 대우가 일상이었습니다. 광주역 사건은 이미 쌓여 있던 민족적 울분에 불을 지핀 계기였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인 박준채, 박기옥, 이광춘 선생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다룬 호외(조선일보/1930. 1. 15.)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학생들의 시위 모습 <출처: 국가보훈부>

광주에서 전국으로 번져간 함성

사건 직후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일 비밀결사인 성진회(誠進會)가 있었습니다. 성진회는 1926년 결성된 학생단체로, 독서회를 가장해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만세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광주고보의 안종화, 박준채 선생이 학생들의 구심점이 되었고,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의 박기옥 선생은 11월 12일 교정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여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목소리를 낸 이 시위는 광주 지역 20여 개 학교로 퍼졌고, 이내 서울·평양·대구·원산 등지로 확산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전국 300여 개 학교에서 약 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한 대규모 항일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학생들의 희생

일제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경찰과 헌병이 학교를 포위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체포·투옥하거나 퇴학시켰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1만 7천여 명이 검거되고, 3천여 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580여 명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은 학생들의 항일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전국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이후 신간회 등 항일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미, 꺼지지 않는 불꽃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단순한 학생들의 저항을 넘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혼을 지킨 항일운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큼니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조직적·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운동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민족의 불꽃이었고, 해방 이후 민주주의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바로 그들의 희생과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㉞



장재성, 왕재일 등 광주고보생 등이 1926년 11월에 조직했던 학생비밀모임 ‘성진회’ 회원들 <출처: 광주시교육청>



왕의 수라상에서 세계의 레스토랑까지

숙수 & 셰프

글 편집실



사진 출처: tvN <폭군의 셰프>



사진 출처: ENA <당신의 맛>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활약하는 셰프들의 모습은 이미 대중에게 친숙하다. 화려한 칼질과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창의적인 요리까지 더해져 셰프라는 직업은 매력적인 무대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레 드라마와 영화 속 요리사 캐릭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조선시대의 숙수와 현대의 셰프가 각각 극적인 인물로 등장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드라마 속 요리사, 극적인 무대에 서다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프렌치 셰프였던 연지영(임윤아 분)이 조선으로 타임슬랩해 대령숙수가 되는 이야기다. 그는 절대미각을 지닌 폭군 이현(이채민 분)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된장 파스타 같은 퓨전 요리로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수라간은 단순한 주방이 아니라 권력과 감정이 교차하는 무대로 그려진다.

ENA 드라마 <당신의 맛>에서는 작은 식당을 지키려는 셰프 모연주(고민시 분)가 재벌 2세 한범우(강하늘 분)와 맞서며 맛의 철학과 자본 논리가 충돌한다.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고 관계를 바꾸는 힘으로 묘사된다. 드라마가 그려낸 숙수와 셰프는 모두 현실보다 극적이지만, 실제 역사와 현재의 직업 세계에도 닮은 점이 있다.

조선의 숙수, 왕의 식탁을 책임지다

조선 시대 '숙수(熟手)'는 왕실의 수라간에서 임금과 왕실의 식탁을 책임지는 전문 조리인이었다. 대부분 궁궐에 속한 노비(첩비, 妾婢) 출신이었으며, 일부는 대대로 세습되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제사와 연회 준비를 도우며 조리 기술을 익히고, 숙련되면 정식 숙수로 편입되는 과정은 오늘날의 견습 제도와 비슷했다. 궁중 주방은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었다. 재료를 다듬는 조부, 불과 탕을 맡은 임부, 국물과 삶기를 담당한 팽부, 상차림을 맡은 선부가 역할을 나눴다. 특히 왕의 수라상을 담당한 '대령숙수'는 숙수 중에서도 최고위 직급이었다. 왕의 식탁에는 30~50가지 반찬과 병과가 오르며, 이는 왕의 권위와 조선 왕조의 위엄을 상징했다.

큰 연회나 제사가 열릴 때면 숙설소라 불린 임시 주방이 설치되어 수십 명의 숙수가 동시에 음식을 준비했다. 초기에는 여성 숙수도 일부 존재했으나, 세종 이후 남성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숙수의 업무는 조과숙과 세면장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이들이 명월관 등 근대 요리업으로 나아가 한식의 기반을 이뤘다.



현대의 셰프, 기술자에서 창작자·경영자로

셰프라는 개념은 19세기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주방 조직을 체계화한 에스코피에 이후, 셰프는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창작자이자 관리자로 인정받았다.

오늘날 셰프가 되는 길은 제도화된 교육 과정을 거친다. 요리학 교나 대학에서 기초를 배우고,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실습을 하며, 주방의 단계별 직책을 밟아 나간다. 초급 조리사에서 파트 셰프, 부주방장을 거쳐 총주방장에 오르는 길은 고된 훈련의 연속이다. 해외 연수와 미쉐린 레스토랑 경험은 국제적 감각을 쌓는 데 중요한 과정으로 꼽힌다. 결국 현대 셰프는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창작자, 경영자, 그리고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기획자로 성장해 간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교육 기회가 존재한다. 많은 학원에서 국비 지원 과정을 운영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한식진흥원의 '한식 영 셰프 인턴십 지원 사업'은 교육생들이 실제 외식 산업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르 꼬르동 블루 서울이나, 이탈리아 ALMA와 연계된 IL CUOCO ALMA KOREA는 국제적 커리큘럼을 국내에서 배울 수 있게 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이봉춘셰프실용전문학교처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고, SK 뉴스쿨은 통합 조리 교육과 함께 호텔-레스토랑 스타주 연계제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타츠원 스시아카데미처럼 일식과 스시에 특화된 단기 집중 과정은 특정 분야 전문성을 빠르게 쌓으려는 수요를 충족한다.

이처럼 현대의 셰프는 정규 교육, 정부 지원, 국제 연계, 특성화 과정, 단기 전문 훈련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그 기반 위에서 자신만의 창의성과 철학을 더해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 셰프 교육 프로그램

기관	교육 내용	포인트	링크
일 꾸오꼬 알마 이탈리아 요리학교 (IL CUOCO ALMA KOREA)	이탈리아 요리 중심, 기초~고급 심화	국제 요리학교 ALMA 연계, 국내·해외 진출 가능	
르 꼬르동 블루 서울	프랑스 요리 중심, 시연+실습 병행	세계적 권위 디플로마 수여	
한국외식조리직업전문학교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종합 조리 실습 이론 병행	외식업계 취업 연계	
스타셰프실용전문학교	조리기능장·제과제빵·바리스타 등 실기 중심 과정 운영	실기 중심, 다양한 조리 영역 경험	
이봉춘셰프실용전문학교	한식·양식 조리 자격 취득 교육	고등학생 맞춤, 자격증 취득 지원	
SK 뉴스쿨 조리과정	한식·양식·일식 통합, 현장 스타주 과정	호텔·레스토랑 스타주 연계, 취업 강점	
한솔요리학원	단기 실습 과정, 기능사·시험 대비	전국 규모, 맞춤형 단기 과정 풍부	
타츠원 스시아카데미	일식·스시 집중 실습 과정	전문 테마 과정, 소규모 집중 실습 과정	

※ SK 뉴스쿨은 제대군인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조리과를 비롯하여 카페베이커리과, MD과, 정보보안과, 자동차판금도장과를 운영하며, 교육비 전액 무료,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과 취업지원까지 진행한다.
- 2026년 신입생 모집: 2025. 12. 1.~1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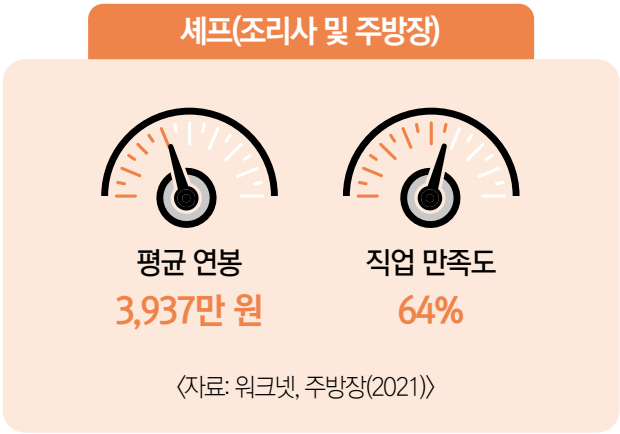


셰프의 무대, 주방을 넘어 세계로

현대 셰프의 활동 무대는 주방에만 머물지 않는다. 레스토랑과 호텔 주방은 물론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획, 케이터링과 이벤트 현장에서도 활약한다. 방송과 유튜브, 책을 통해 대중 앞에 서는 미디어 셰프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최근에는 대체식품 개발과 푸드테크, 로봇 주방 시스템 같은 혁신적 영역으로 발을 넓히며 미래 산업과의 접점까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긴 근무시간과 치열한 경쟁, 낮은 보상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드라마 속에서 셰프와 숙수는 극적인 장치로 그려진다. 폭군의 절대미각을 만족시키려 분투하는 대령숙수, 자본 논리에 맞서는 셰프의 고집은 허구이지만, 그 속에는 현실의 단면이 녹아 있다. 조선의 숙수는 왕실의 식탁을 지키는 장인이었고, 오늘의 셰프는 맛과 철학을 무기로 세계와 소통한다. 시대는 달라도 요리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음식은 여전히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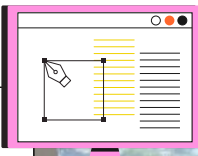
ENA 드라마 <당신의 맛>



※조리사 및 주방장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조리사 및 주방장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포토샵, 채팅창 안으로 들어오다



2025년 8월 초 ‘나노 바나나(nano-banana)’라는 정체불명의 이미지 생성 AI가 이슈가 됐다. 소셜 트레이딩 앱 ‘애프터아워’ 창업자 케빈 쉬우는 X(트위터)에 블랙핑크 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나노 바나나로 만든 가짜 사진이었다.

글 이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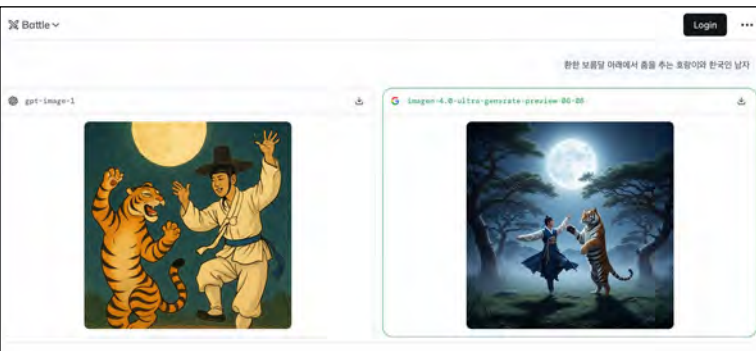


출처: 케빈 쉬우 X 계정

LMARENA - 나노 바나나 이슈가 되다

LMarena.ai는 UC 버클리 연구진이 만든 AI 벤치마크 플랫폼이다.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면 무작위로 두 개의 AI가 답변을 해주고, 어떤 AI의 답변이 더 나은지를 선택하면 그제야 어떤 AI였는지 알려준다. 이 방식을 통해 AI 플랫폼 중 무엇이 더 나은 대답을 하는지 순위를 결정하는 사이트인데 8월 초부터 nano banana라는 모델이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나노 바나나가 무엇이나가 관심을 모았고 이어 8월 20일경 구글의 새로운 AI 이미지 모델이고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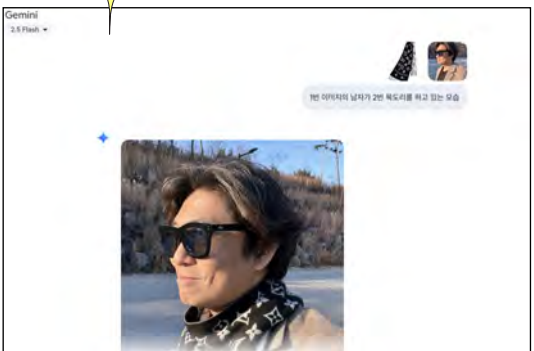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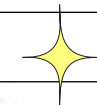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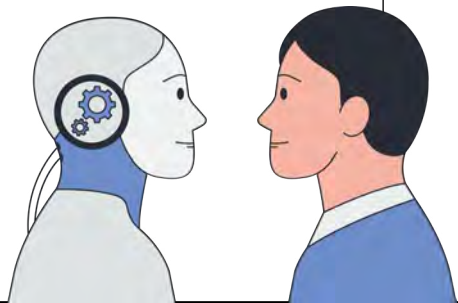


제미나이 - 나노 바나나

사용하는 방법이 쉽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미나이 flash 모델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만 하면 바로 생성해 준다. 더 놀라운 건 사진 합성 기능이다. 생성형 AI는 지금까지 연속성 있는 이미지나 기존 이미지를 약간 변형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원한다면 빌게이츠나 손흥민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합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진 점이 있다. 기업과 개인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절감’이다.

진짜와 가짜.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이 왔다.

나노 바나나는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



진짜와 가짜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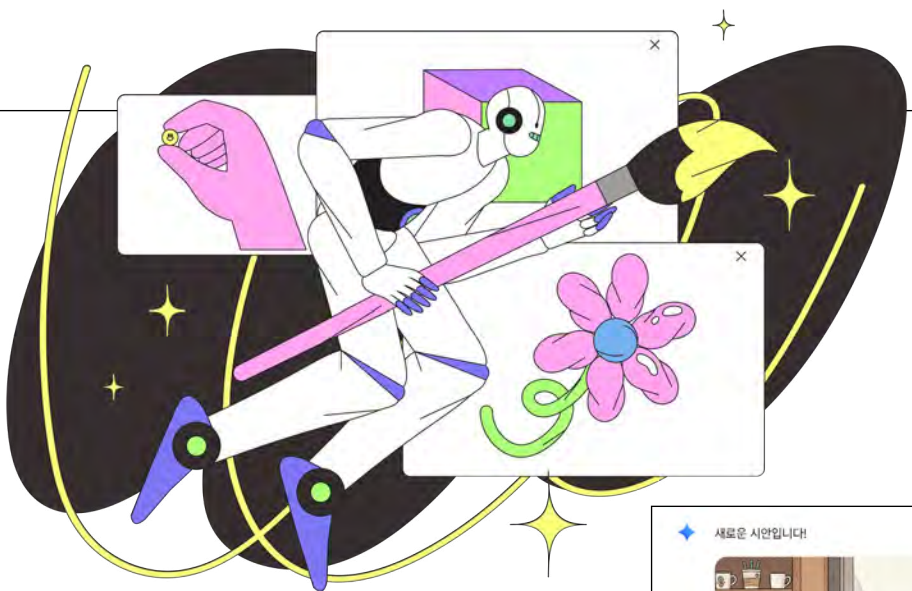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생성할수록 그 정교함이 너무 놀랍다. 한편으로는 화면으로 보는 디지털 속 모든 것들은 사실 1과 0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디지털 생성물’이며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2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채팅창에서 대화만으로 포토샵처럼 막강한 이미지 생성과 편집이 가능해졌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제 이미지를 검색하는 일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로 바뀌보자.

둘째 오리지널리티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에서 어설피지만 ‘진짜 사람’이 만든 창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스타일을 준비하자.

지금 바로 제미나이-나노 바나나를 활용해 보자. 📱

글쓴이 소개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박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



나노 바나나로 비용절감

어떤 사진에서 텍스트를 제외하고 싶거나 웃는 모습을 만들고 싶을 때 예전에는 ‘포토샵’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제미나이에 사진을 입력하고 제대로 부탁만 하면 된다. 쇼핑몰은 물론 회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제품의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도대로 실제 디자인한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다.



색과 바람과 울림을 따라 걷는 길

경남 통영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푸른 바다와 언덕, 그리고 오래된 골목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도시, 통영.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이곳은 충청·전라·경상 삼도의 수군을 지휘하던 본영이었다.
‘병기를 씻고 나라를 지킨다’는 뜻의 세병관을 중심으로, 알록달록한 벽화로 가득한 동피랑과 문학 향기가 흐르는 서피랑,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깃든 이순신공원까지.

바다와 예술, 그리고 역사가 공존하는 통영의 길 위에서는 시간마저 천천히 흐른다.



동피랑, 색으로 살아난 마을

세병관에서 도보로 10분 남짓 걸으면 알록달록한 벽화로 가득한 동피랑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피랑’은 ‘벼랑’을 뜻하는 통영 사투리이며, 이곳은 국내에서 벽화마을 운동의 시초가 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철거 위기에 놓였던 마을이 주민과 예술가들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다. 전국의 미술대학 재학생과 작가들이 참여해 넓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고, 지금은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2년마다 새로운 주제로 벽화를 다시 그리며 늘 새로움을 더하고, 소품 가게와 커피숍, 향기 가게, 음식점 등이 골목마다 이어져 정겨운 풍경을 이룬다.

서피랑, 바람과 계단이 만든 길

동피랑에서 시선을 돌리면 맞은편 언덕 위로 서피랑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서피랑은 통영의 작가들이 남긴 예술의 흔적을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99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통영의 문학정신을 상징하는 흔적들이 이어진다. 시인 유치환의 시비와 함께 소설가 박경리의 생가가 자리해 문학의 향기를 더하고, 담장마다 새겨진 시구는 한 걸음마다 여운을 남긴다. 계단을 다 오르면 통영항과 미륵산이 잔잔히 시야에 들어온다. 화려한 전망 대신, 오래된 지붕과 골목을 따라 스며드는 사색의 풍경이 이곳의 진짜 매력이다.

세병관, 통제영의 숨결을 품다

통영의 이름은 ‘삼도수군통제영(統制營)’에서 유래했다. 세병관은 그 통제영의 중심 건물로, 충청·전라·경상 삼도의 수군을 총괄하던 객사였다. 1605년(선조 38년) 제6대 통제사 이경준이 완공한 이 건물은 현재 국보 제30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웅장한 팔작지붕과 넓은 마루가 인상적이다. 조선시대에는 수군 장수들이 모여 작전을 논의하고 임금의 교지를 전달받던 장소였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곳에서는 국가유산의 이야기에 첨단 미디어 기술을 더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 통제영, 평화의 빛’이 열렸다. 적을 무찌르는 힘보다 사람을 지키는 의지를 택한 통제사와 수군의 이야기가 빛과 영상으로 되살아나며, 통영의 역사와 문화가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세병(洗兵)이라는 이름에는 ‘은하수 물을 끌어와 병장기를 씻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세병관은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당시 일본이 이곳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안, 통영은 박경리, 유치환, 윤이상 등 세계적인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으로 성장했다.



통영중앙전통시장, 꿀빵의 달콤한 향기

통영의 삶과 맛이 고스란히 담긴 통영중앙시장은 항구의 활기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하다. 신선한 해산물과 총무김밥, 굴국밥이 가득한 시장 골목에서는 그 지역 특유의 생활 리듬이 느껴진다. 그중에서도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건 꿀빵이다. 시장 초입의 꿀빵집마다 줄이 늘어서고, 따끈한 꿀빵 한 입에 달콤함과 바다의 소금기가 어우러진다. 그 맛은 여행의 피로를 녹이고, 통영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전한다. 46



이순신공원, 바다 위의 영웅을 만나다

서피랑에서 차로 10분가량 이동하면 이순신공원에 닿는다. 이곳은 통영 앞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한산도와 죽도, 비진도, 방화도 등 570여 개의 섬이 눈앞에 펼쳐진다. 공원 중심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위풍당당히 서서 통영향을 굽어보고 있으며, 장군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여전히 한산대첩의 바다가 고요히 빛난다. 이순신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통영이 조선 수군의 중심이자 나라를 지킨 영웅의 도시였음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Tip. 여정의 정보

세병관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 /
09:00~18:00, 연중 무휴

동피랑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1길 6-18

서피랑 마을·99계단

경남 통영시 충렬로 22

이순신공원

경남 통영시 멘데해안길 205

통영중앙전통시장

경남 통영시 중앙시장1길 1



제14회 제대군인 주간, 전국을 응원의 물결로 물들이다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군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이 문장은 제대군인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이다. 국가보훈부가 마련한 ‘2025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의 헌신에 감사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함께 응원하는 시간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제대군인을 향한 존경과 격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을 향한 사회의 약속

‘제대군인 주간’은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범국가적 행사다. 2021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10월 둘째 주가 공식 기념 주간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2025년 행사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나흘간 개최됐다. 올해의 주제는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리:스펙 제대군인’으로, 군 복무로 쌓은 경험과 헌신이 사회의 새로운 빛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주간 선포식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제대군인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창업 박람회, 또 다른 출발의 무대

제대군인 주간은 9월 29일 서울 강서구 (주)하이프라자에서 열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현판식’으로 막을 올렸다. 하이프라자는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전국 41개 기업 중 하나다. 이날 국가보훈부와 (주)하이프라자는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하이프라자는 전국 LG전자 베스트샵 매장에서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본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임직원에게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멤버십 포인트를 ‘구매혜택 대상’ 명의의 멤버십 카드에 적립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튿날인 9월 30일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대군인 주간 선포식’과 ‘취·창업 박람회’가 열렸다. ‘리:스펙 제대군인, 또 다른 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국방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와 LG전자, 현대자동차, 삼성

SDS, HD현대중공업,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등 101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AI 기반 직무역량 검사 ▲메타버스 직무 체험 ▲구직 매칭과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과 증명사진 촬영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한 현장 특강과 질의응답 세션도 마련돼, 제대군인들이 직접 채용 정보를 듣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도 ‘국민 한마당’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입영·전역·새로운 시작·감사와 응원’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부스에서는 내무반을 재현한 생활관 전시, 메이크업·헤어 진단, 증명사진 촬영, 응원메시지 작성 등이 이어졌으며, 가수 홍경민의 특별공연과 버스킹(오아, 팝밴드 파인)이 펼쳐져 시민들과 제대군인이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시상과 선포식, 하나로 모인 응원의 순간

박람회 현장에서는 제대군인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취·창업 성공수기 공모전 당선자에 대한 표창과 상상이 진행됐다.

올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는 프로에스컴, 건은, 에이치케이씨, 크레텍웰딩, 성도피앤에이 등 다섯 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프로에스컴은 2015년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유지하며 2024년 한 해에만 제대군인 204명, 국가유공자 124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냈다.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최건한 씨가 수상했다. 그는 전기가 배터리를 재활용해 해양선박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개발하며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거뒀다. 취·창업 성공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은 이치호 씨에게 돌아갔다. 전역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예비전력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제대군인에게 공감과 용기를 전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제대군인 주간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리:스펙 제대군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수건을 함께 펼치며 응원의 함성을 보냈다. 그 순간, 제대군인의 자부심과 국민의 감사가 한 데 어우러지며 행사의 의미가 가장 뜨겁게 빛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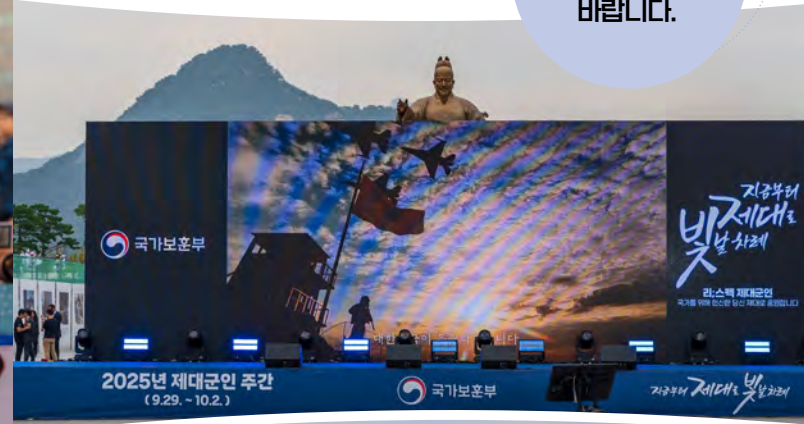
제대 후 밥벌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전국으로 확산된 감사와 응원의 마음

제대군인 주간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방보훈관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각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워크숍 ▲가족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힐링 체험활동 ▲제대군인 멘토 초청 간담회 및 스타 제대군인 특강 ▲군부대 순회 제대군인 지원제도 안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보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대군인 지원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전직 지원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주간’은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향한 사회의 약속이다. 이제 제대군인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다시 빛나는 시작’이다. 그들의 어깨 위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가 자라고 있다. 🇰🇷

청춘의 수고가
제대로 대접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비우고, 지혜는 채우는 시간

늦가을, 비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책



너를 아끼며 살아가

나태주 | 더블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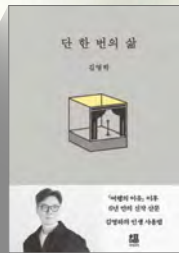
나태주 시인이 강연을 준비하며 틈틈이 메모해 둔 노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던 글귀들을 가려 뽑았다.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함과 동시에 자존감의 회복을 돕는 따스한 목소리로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슈테판 초바이크 | 다산초당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암흑 속에서도 슈테판 초바이크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절망의 시대를 유머와 통찰로 견뎌낸 한 지식인의 품격을 보여준다. 그의 문장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위로로 다가온다.



단 한 번의 삶

김영하 | 북복서가

인간이 살아가며 마주하는 선택과 후회, 그리고 삶의 유한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에세이다. 그는 실패조차도 우리 존재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결국 이 책은 불안전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일깨우는, 인생에 대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이다.

한 달에 한 가지, '비우는 날, 지구가 숨 쉬는 시간'

11월 29일, 전 세계가 하루 동안 '소비를 멈추는 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날은 바로 'Buy Nothing Day(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과잉소비를 지친 지구를 쉬게 하는 하루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운반되는 상품들은 생산·포장·운송 단계마다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오며, 이 과정에서 1년 약 2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하나 덜 사는 일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지구의 숨을 돌려주는 행동이 됩니다. '비우는 하루'는 결핍이 아닌 회복의 시간입니다. 소비를 멈추는 그 하루 동안, 우리는 돈 대신 지구와 마음의 여유를 채울 수 있습니다.



독자퀴즈

QUIZ

1929년 11월, 광주역에서 일어난 일본인 학생의 조선인 여학생 희롱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전국 300여 개 학교, 5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항일 시위는 무엇일까요?
(26~27P 지식 산책 참고)

① 3·1운동 ② 의열단 의거 ③ 광주학생독립운동 ④ 신한회 결성

※ 11월 20일(목)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5년 10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양재천(부산 남구) 이명호(경기 양평)
조성근(경기 이천) 지호성(충북 청주)
한대용(경기 포천)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10월호 정답: ② 한글날

2025년 11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찰스 J. 로링 주니어 미국 공군 소령



Charles J. Loring Jr. 1918. 10. 2.~1952. 11. 22.

기수를 돌려 적 진지를 파괴하고 산화한 김화 저격능선 전투의 영웅

찰스 J. 로링 주니어 소령은 1918년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인 1942년 미 육군 항공대에 입대하여 조종소위로 유럽 전선에서 총 55회의 전투 임무를 완수하였다. 1952년 6·25전쟁에 참전한 그는 제36비행대대의 작전장교로 근무하면서 F-80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여 유엔군의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2일, 강원도 김화 저격능선 일대로 출격해 공산군 포병 진지에 급강하 폭격을 하던 중 적의 대공사격을 맞아 기체를 회복할 수 없었던 그는 탈출 대신 기수를 적진으로 향해 돌진하여 끝내 산화하였다.

찰스 J. 로링 주니어 소령의 발자취

1942년 미 육군 항공대 입대 후 항공 생도로 선발되어 비행훈련 수료
1952년 미 공군 제8전투폭격단, 제36, 80비행대대에서 복무
1954년 미국 명예훈장 추서
2024년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추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